

# 아리셀 참사 유족들 "국방부와 노동부가 참사 방기한 책임자, 나서서 해결하라"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9.11 14:01

“삼성은 아리셀 참사 주범 에스코넥과 거래 중단하라” 시민추모제



사진=전병철(비주류사진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 10일, 아리셀 참사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국방부와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또 다른 배후임을 밝히며, 정부가 나서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앞에 선 희생자 가족은 “최근 에스코넥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의 이유가 지난 박순관 부자를 구속한 국방부 ‘납품 비리’ 외에 추가의 혐의점이 있고, 이는 밝혀진 것보다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시작됐다.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는 그 이면에 국방부의 공모 혹은 방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방부의 공급망 관리 실패를 넘어,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에 국방부의 책임의 막중하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철저한 감찰, 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고 희생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참사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은 희생자 가족은 고용노동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관리, 감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듣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씨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번 면담 요구는 지난달 12일 접수한 공문에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응답이 없어 재접수한 것이다. 이들은 공문에 장관 면담 요구 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유족 의견 수렴 구조, '아리셀' 측과 피해가족협의회 교섭 지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 등을 담았다.



사진=전병철(비주류사진관)



사진=전병철(비주류사진관)

### “삼성은 아리셀 참사 주범 에스코넥과 거래 중단하라” 시민추모제

‘추모와 다짐’ 시민추모제가 오후 7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강남역 8번출구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삼성(삼성전자/삼성SDI)에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에스코넥과의 납품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평화의나무합창단이 ‘아름다운 사람’, ‘인간의 노래’로 따뜻한 연대의 무대를 만들었다.

### 김혜영 님(고 이한빛 PD 어머니)

“박순관이 구속될 때, 한빛 아빠는 29일 동안의 단식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떠올리며 우리가 50인 유예를 막아내서 박순관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가슴이 벅찼다고 했습니다. 한빛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 같았지만, 그때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억울하게 죽은 한빛만 생각하며 싸우기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3명의 가족만 생각하고 싸웁시다. 싸움이 길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막막하지만 끝까지 싸워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사랑하는 아이, 조카, 형제들을 영원히 곁에 두고 살 수 있습니다.”

###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22년 기준으로 2,230명이 넘는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반면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733명이다. 한국은 대단히 안전한 나라 처럼 보이고, 길거리에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일터에서는 2천 명이 넘게 죽는 나라입니다. 살인을 막기 위한 경찰은 13만 명이 있지만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2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산재 사망이 줄지 않는 것은 이 사회가 안전에 대한 낮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행렬, 기업의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연대해야 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사진=전병철(비주류사진관)

### 정상천 노동장 사무총장

“매일 마음을 다잡고 첫 사례를 만들어낸 가족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곳은 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삼성과 싸우던 곳입니다. 삼성 오너에게 투쟁의 승리를 얻어냈던 투쟁의 현장입니다. 삼성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책임을 지지 않는 반노동자 기업이입니다. 준법감시단을 만들며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와 소통하겠다는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요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장 에스코넥과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지킬 것이라면 당장 에스코넥의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수많은 부정의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거래를 끊고 23명의 희생자의 사망에 공감하길 바랍니다. 공범이 아님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은 삼성과 싸워 이겼던 투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나현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12년에 만들어졌고, 외 국에 나가있는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에 인권 실사를 하라는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원청인 대기업이 이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자는 요구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 심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에스코넥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스코넥 자체가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고, 삼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인권 경영을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전병철(비주류사진관)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아리셀 참사를 든곤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을 만드는 대만 팍스콘 공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노동자들의 투신을 통해 알려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외부화하고 전가하면서, 노동의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에서 올해만 사망한 7명이 사망했고, 모두 사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들이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 항철우 아리셀 희망버스 집행위원장

“아리셀 참사의 공범은 삼성임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서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 불립니다. 삼성은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정치권력도 좌지우지하며 스스로 초일류경영이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가 없는 기업이라 가능한 경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노조를 만들었고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백혈병 직업병 투쟁과 산성 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투쟁이 이대로 끝난다면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투쟁을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8월 17일 희망버스에 2천 여명의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 고 강순복 님과 고 강금복 님의 유족 허헌호 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길을 가다가도 꽃을 보면 아름답다 사진을 찍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귀여워하며 말하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아직도 화장도 못 치르고 차디차게 냉동고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가족의 마음은 아직도 아픕니다. 그런데 정작 주범인 박순관은 여태껏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에스코넥 경영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여러 번 찾아가지만 굳게 잠긴 문만이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의 마음이겠거니 싶습니다. 삼성은 원청이고 에스코넥은 하청인데, 삼성에게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여태껏 우리는 아무것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고 관계자의 얼굴 한 번 볼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당장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사진=전병철(비주류사진관)



사진=전병철(비주류사진관)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